

“앞 차가 미행해 왔다고 들었다”

김승환 교육감, 우병우·국정원 사찰 피해 증언

“수행 기사가 평소와는 다른 코스로 꺾어간 적 있어 당시 모든 권력기관이 이 사건에 동원돼 있다고 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환(64) 전북교육감이 11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오후 출석한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 앞서 “드러날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를 한 차레만 했겠느냐”라고 말했다.

“미행 등 사찰 사례가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 수행 기사가 평소와는 다른 코스로 꺾어간 적이 있다”라며 “이유를 물어보니 앞 차가 우리를 미행해 왔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우 전 수석과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이 이 사건에 동원됐다고 본다”고 말한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찰 지시는 교육감들의 개인 비리 등 ‘악점’을 찾으려는 방식으로 전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시가 내려진 뒤 실제로 국정원은 보수 성향의 대구·경북 교육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육감들에 대해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교육감과 조희연 교육감은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놓고도 대립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불법사찰 피해자로서 지리에 있지만, 교육자로서 책임감도 느낀다”라며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일등주의 교육의 참담한 결과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 지시로 국가정보원에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폐쇄 위기 놓인 학교를 살려라”

서남대 구성원들 청와대 앞 농성… “대통령 면담 신청할 것”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은 폐쇄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관련기사 5면>

11일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수와 교직원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신청하기위해 청와대로 출발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질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전체 교직원회의를 열고 대부분의 교수와 직원들이 동의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정의를 지 못한 폐교 추진에 강력히 항거하며 정의를 위한 일이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로 간다”며 “약 200명의 대학 교직원은 사직서를 제출

하고 오늘부터 교단을 떠나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은 2012년 설립자의 천문학적 교비 횡령사건 이후 2년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임시시사를 선임, 파견했지만 임시시사가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서남대학에는 그동안 단 1원의 정부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롭지 못한 폐교 결정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후 모든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도내 한우브랜드 ‘참예우’, 5년 연속 명품 인증

전북한우광역브랜드인 ‘참예우’ 축산물 브랜드 연찬회에서 수상한다.

‘참예우’는 전북 한우 대표 브랜드로 3년 연속(2010~2012년)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3년부터 5년간 명품브랜드로 인증받으면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와 완주군이 11일 (주)뉴텍 등 4개사와 완주 테크노밸리에 공장 신설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업 완주서 ‘등지’

도-완주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장 신설 협약 체결
총 투자액 190여억원
고용 예정인원 90여명

이 다소 소요되는 점과 자동 발송량 등 시제품 개발을 위해 완주군에 신규 투자를 계획했다.

한국그린에너지(주)는 지난 2011년도 정읍 태안농공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사업장은 영진코리야의 사업장을 임대 2016년부터 2년 계약하여 운영 중에 사업장을 확장하고자 신규투자를 결정했다.

이들 4개기업의 투자 규모는 총 투자액 190여억원, 고용 예정인원은 90여명 정도이다.

이번 투자기업들은 자동차부품, 완제의약품, 금속가공업, 구조용 금속관계품 등 우수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자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와 완주군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구어 낸 값진 성과로 투자규모는 다소 크지는 않지만 우수 중소기업 투자를 유치해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더욱더 내실을 다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 생산 및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전북도 또한 이번엔 투자하는 기업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완주군과 협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와 완주군은 11일 완주군청 중회의실(4층)에서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송지용, 박재완 도의원, 정성모 군의장, 서남용 완주군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뉴텍 등 4개사와 완주 테크노밸리에 공장 신설에 따른 신규 투자를 확정짓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뉴텍은 현재 사업장이 협소(2,200여명 정도)해 최근 대주 코레스 등 신규 물량이 증가로 인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계획했다.

(주)한국네이처팜은 지난 1973년 국내 최초로 생약 역기스제를 도입한 이래 최고 품질의 한방의약품과 일련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온 한중제약에 40여년간의 식품 의약품 개발 및 제조기술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제약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중 신규 물량이 증가로 인한 신규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

(주)인익스는 현 수원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진리빙, 대신시스템, 남산알미늄 등 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또한 남부지역 납품시 물류비용

전주시 복지정책 ‘우수’

전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과 복지전달체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

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최초로 실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실적 등에서 전국 지자체 대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정부로부터 총 5100만원의 특별 포상금도 받게 됐다. /김민근 기자

福 가득한 새해

丁酉年(정유년) 태권도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茂戌年(무술년)에도 태권도원을 더욱 사랑해 주세요.

태권도원 www.tkdwon.kr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D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TPF 태권도진흥재단
 5554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T. 063-320-0114